구원은 불을 지나도 잃을 건 없는 상태

(고린도전서 3:10~17)

10.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11.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12.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13.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14.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구원은 불을 지나도 잃을 건 없는 상태>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구원은 불을 지나도 잃을 건 없는 상태"
오늘 본문에 "공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공적은 수고하고 노력하여 이루어낸 일이나 결과를 말합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과 아볼로와 같은 사역자들의 공적은 반드시 불을 거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불을 거치면 금과 은과 보석은 그대로 남습니다. 한편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처럼 다 타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공적을 이룬 사람은 상을 받게 되지만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와 같은 공적을 이룬 사람은 다 불에 타버려서 상실감에 고통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은 3차원 세계에 있는 물질을 소멸시키는 힘을 상징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보면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라고 예수님의 재림을 불과 연관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불은 모든 물질을 태우는 힘으로 상징

됩니다. 3차원 세계에 있는 모든 물질을 없앤다는 의미에서 보자면 예수님의 재림까지 가지 않더라도 사람은 육체가 죽을 때에 불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람이 죽을 때 인격의 핵심인 마음은 육체로 만날 수 있었던 물질세계의 모든 것들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죽음은 인격의 핵심인 마음에서 이 세상의 물질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잃게 만드는 불과 같습니다.

이로부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역자들의 사역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사역의 내용은 곧 교인들입니다. 사역자들의 공적이 불을 통과하면서 없어진다는 것은 교인들에게서 사역의 결과가 하나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복음과 연관된 기본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는 복음에 포함돼있는 내용 때문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불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편 구원은 육체의 죽음과 함께 잃게 될 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몸이 죽는다고 생각할 때 무엇인가를 잃을까 아쉬움이 있다면 아직 받은 구원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으로써 구원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세상이 아쉽게 느껴진다면 허락받은 구원을 온전한 형태로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였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는 두렵고 떨리는 상태입니다. 몸이 죽을 때에 잃을 것들을 마음속에 담고 있는 상태가 바로 죄입니다. 몸이 죽으면 잃어버릴 것들을 담고 있는 이 상태는 지옥행 사형수들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육체의 죽음과 함께 상실될 수밖에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마음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실종 처리되고 맙니다. 몸이 죽는다고 해서 잃어버릴 것들을 마음으로 붙잡으면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결국 문제는 이 세상 것에 대한 상실감입니다. 불과 같은 육체의 죽음을 지날 때 이 세상 것들은 없어지게 됩니다. 이 세상 것들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상실감을 느끼고 아쉬워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배반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가장 구체적인 상태는 육체가 죽을 때 없어질 것에 대해 상실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심리적 상태를 아는 것은 중요한 도움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가 사역한 뒤로 분쟁과 분파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갈라진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런데 그중에서 게바 즉 베드로는 고린도 교회에 가서 영향력을 행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볼로도 의도했던 바는 아니었으나 결과적으로 그의 사역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분파의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심리적 상태를 추정하기 위하여 아볼로의 사역이 왜 분쟁의 계기가 되었는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아볼로의 공적이 언급되는데 그중에서 27절을 보면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유익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써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고 하였습니다. 또 아볼로에 관한 인물묘사를 보면 24절에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언급으로부터 아볼로 사역의 핵심이 설득력 있는 말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바라보며 그 원인을 "말의 지혜"에서 찾았습니다. 이것은 헬라 문화권에 속해있는 고린도 지역의 특성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아름다운 "말의 지혜"를 좋아했습니다. 다시 말해 상대나 대중을 꼼짝 못하도록 말로 설득하는 기술을 아름답고 굉장한 가치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영향권 아래에 있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결국 "말의 지혜"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헬라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결국 사람을 따르게 되었고 분쟁과 분파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말의 지혜"란 말하는 사람의 영역을 만들어 내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설득력 있고 지혜롭게 여겨서 추종하는 무리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생겨난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 17절에서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말을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말로써 사람을 설득시켜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설득력 있는 말에 근거를 두게 되는 믿음을 피하고 오직 십자가 사건을 사실로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 사건을 받아들이든 아니든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결정될 일로 여겼습니다. 한편 말씀드렸듯이 아볼로 사역의 특징은 설득력 있는 말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아볼로의 사역이 의도치 않게 헬라 문화권 안에서 "말의 지혜"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속성을 자극하고 불을 지른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본문 4~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아볼로를 물을 주는 사역자로서 인정하고 칭찬하였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아볼로의 사역에 대한 우려가 드러납니다. 10절을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닦았고 아볼로는 그 터 위에 건물을 세우는 사역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역을 할 때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터는 용납될 수 없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따라서 아볼로의 사역은 다른 터를 닦는 일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쌓아가는 사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15절을 보면 불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렇게 쌓아간 사역의 공적은 반드시 불을 통과하게 될 것이고, 이때 말을 강점으로 내세운 아볼로의 사역이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처럼 불타서 없어진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내용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아볼로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닙니다. 아볼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활동할 이 세상 모든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러한 사역자들을 만나고 가르침을 받고 따를 수밖에 없는 모든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는 사역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되어가는 일을 위해 수고하고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 자리에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고백할 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이르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인격의 핵심인 마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닦았다고 하였습니다.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또한 아들답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고 아들다운 모습이 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된다는 것은 인격의 핵심인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마음이 인격의 핵심인 이유는 자아의식이 살아있는 상태가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77억 명 모든 사람에게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서는 공통적으로 무엇인가가 있다고 느끼는 의식 작용과 있는 것들 중에서 좋다고 여겨서 욕구하는 작용이 24시간 작동됩니다. 이러한 마음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아들다움을 드러낼 때의 모습은 예수님의 사역으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시작합니다. 공생애의 사역은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이유를 제공한 시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의 사역을 통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하신 일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출발해 부활과 승천과 보좌 우편에 이르는 연쇄 과정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인격의 핵심인 마음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됩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출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구원의 선물 안에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고 하신 바와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분에게 구원의 선물을 받는 입장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분에게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면 마음의 의식 작용과 욕구 작용에 세상 것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구원의 시작인 십자가는 세상을 빠져나가는 출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될 모든 것들은 세상 밖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육체로 세상을 만납니다. 육체는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의 모든 물질로 이루어진 것들을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육체가 죽는다는 것은 인격의 핵심인 마음과 물질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무관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진 인격입니다. 그 마음에는 육체의 죽음이라는 불을 지나는 중에 잃어버릴 것들이 담겨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마음은 하나님의 아들다운 속성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말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반대로 육체의 죽음을 지나는 동안에도 마음에서 잃어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면 하나님의 아들 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역자에게 공로가 되는 교인들의 상태입니다.

모든 마음은 의식 작용과 욕구 작용이 있어서 있음을 느끼고 좋음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인격은 세상 밖에 계신 하나님의 있음을 느끼고 좋음을 소망하게 됩니다. 십자가가 세상 밖으로 나가는 출구이기에 하나님의 존재감만을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의 좋음만으로 욕구가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있음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좋음을 욕구하는 동안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현실로 느껴지게 됩니다. 마음이 천국 현실감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육체의 죽음이라는 불을 통과하여도 세상 것에 대한 아무런 상실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룬 상태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상태는 이와는 달랐습니다. 분쟁과 분파가 일어나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쟁과 분파가 생긴 이유는 육체의 죽음이라는 불을 지날 때 잃어버리게 될 것들에 대하여 아쉬움과 상실감이 생길 만큼 세상 것들을 마음에 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을 담고 있지 않다면 상실감도 느낄 수 없습니다. 분파를 만든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나의 영역을 추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죽으면 이 땅에서의 자기 영역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불로 비유되는 육체의 죽음을 지나갈 때 마음에서 상실감이 느껴질 정도로 육체가 만나는 세상 것을 담고있는 상태라면 결국 아볼로의 사역은 본의 아니게 상실과 공허함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아볼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조차도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한탄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셨던 바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진정한 내용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예수님께서 공허함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 사건이 있은 뒤에야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사역의 효과는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한탄하셨고 우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이 사역자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마음의 고통입니다. 반대로 사역을 받는 사람들이 육체의 죽음인 불을 지나는 동안 마음속에서 세상 것을 담은 적이 없다면 어떤 것도 잃어버릴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존재감과 하나님의 좋음과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의 현실감으로 채워져 있어서 아무것도 잃지 않는 상태를 금과 은과 보석에 비유하고 있

습니다. 그것이 곧 사역자들에게는 상이 됩니다.

14절의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라는 부분은 쉽게 이해되실 것입니다. 사역자는 교인들로 하여금 세상 밖에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감과 좋으심과 천국의 현실감을 갖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사역을 받은 대로 육체가 죽어도 잃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럴 때 교인들은 사역자에게 상급이고 공로가 됩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의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15절의 앞부분을 보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아볼로의 사역 이후에 고린도 교회는 분쟁에 휩쓸리게 되었습니다. 아볼로가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세상 밖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감과 하나님의 좋음과 천국을 현실로 느끼는 대신에 이 세상에 있는 존재인 바울이나 아볼로의 존재감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역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 것의 있음과 좋음을 느끼며 천국이 아닌 세상을 현실로 느끼고 마음을 채우는 것은 사역자의 공적이 불타는 상태입니다. 해를 받는다는 것은 사역자가 사역의 결과로 상실감과 공허함으로 괴로움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이어지는 15절 하반부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쉽게 오해됩니다. 사역을 받은 사람이 잘못 되어서 구원받지 못하더라도 사역자 자신은 불을 통과하는 것처럼 겨우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식으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본문은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교인들을 위하여 사역을 하였습니다. 교인들 마음 안에 금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존재감, 은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좋으심, 보석에 해당되는 천국의 현실감이 생기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교인들 마음 안에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았고 여전히 마음이 세상 것의 존재감과 좋음과 현실감으로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불로 비유되는 육체의 죽음 앞에서 이 세상 것을 잃었다는 상실감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반하며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구원을 받았고 이루었다면 지금 육체가 죽더라도 아쉬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마음은 이 세상 바깥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감과 하나님의 좋으심과 천국의 현실감으로 채워져 있기에 육체가 죽는다고 해도 잃을 것이 없습니다. 잃을 것이 있다고

느껴진다면 아직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받은 구원은 구원의 약속이고 구원의 허락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받은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지금 죽는다고 해도 이 세상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존재감과 하나님의 좋으심과 천국의 현실감으로 채워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역을 받은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사역자는 어떨까요? 사역을 받은 교인들이 금과 은과 보석을 마음에 품은 자가 없이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처럼 타버릴 것만 갖고 있어 지옥으로 간다고 해도 사역자가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예루살렘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저 같은 사역자의 사역이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지당한 일이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이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사역자가 지옥을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사역자도 예외 없이 겪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는 말씀은 사역자 자신도 불 가운데를 지나가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는 사역을 한 사람이 불 가운데를 지나는 동안에 그 마음속에 사역의 결과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유대인을 이길 정도의 지혜로운 말로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공중 앞에서 말로써 유대인을 이기는 기쁨 때문이었다면 아볼로에게도 구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잘 전했다고 하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다면 불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물론 아볼로가 말로써 사역을 했다고 해서 사람을 이기기 위해 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아볼로 자신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하나님의 존재감과 하나님의 좋으심과 천국의 현실감을 담고 있었고 설득력 있는 말로 사역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다면 아볼로가 불을 지날 때 너끈히 지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아볼로가 공중 앞에서 말로 이기는 것에 기쁨을 얻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자신을 "말의 지혜"를 갖고 있는 탁월한 스승으로 섬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면 불을 통과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볼로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해당되고 적용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사역자나 사역을 받는 교인이나 누구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불로 비유되는 죽음을 통과할 때 인격의 핵심인 마음에서 상실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수 없다면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은 육체가 죽을 때 잃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룬 상태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사역을 근거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이제는 아들답게 됨으로써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됨은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상 바깥에 있는 천국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눈앞에 있는 것처럼 느끼고 하나님의 좋으심만을 바라며 욕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끼고 하나님의 좋으심을 소망함이 유지되는 동안에 돈 문제를 대하고 건강문제를 대할 때에 어떤 바람도 생기지 않습니다. 눈앞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게 됩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촬영 현장에서 배우들이 감독의 지시에 따르듯이 성령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뿐입니다. 촬영 현장은 배우들이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지 배우들의 현실은 아닙니다. 세상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천국만이 현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격의 핵심인 마음이 하나님의 존재감과 하나님의 좋으심과 천국의 현실감으로 채워져 있을 때 죽음은 하나도 잃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직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끼고 하나님의 좋으심에 대한 소망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유지할 때에 현실인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려고 하셨습니다. 지금 죽어도 마음에는 세상 것의 있음과 좋음을 담은 적이 없고 세상을 현실로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상실감과 아쉬움이 없는 상태가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받는 구원이 이쯤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구원을 이루면서 만끽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가려져 계시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와 똑같은 유일한 있음과 좋음의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아버지의 존재감과 아버지의 좋으심과 천국이 현실이라는 느낌으로 마음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오늘 죽어도 아쉬울 것이 전혀 없는 천국의 아들다움이 하루 종일 유지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